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 전면 재편해야”

중소기업연구원, ‘낙수효과’ 한계 직면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발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주장해 온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낙수효과에 관한 통계적 분석이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제는 대기업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활력 있는 다수가 중심이 되는 경제 시스템 구축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에 관한 거시적인 통계 분석결과를 보면, 대·중소기업 간에는 낙수효과가 약화되거나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내의 다수의 연구가 대기업의 실적개선이 가계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고용유발계수가 9.7로 대기업(5.5)보다 높아 오히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대기업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실험으로 들었다.

또 납품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거래관계를 직접 측정할 미시적 통계분석에서도 낙수효과는 2차, 3차 중소기업체로 갈수록 파급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1% 증가할 때 1차 협력사의 매출은 0.43% 증가했으나 2차 협력사의 매출 신장은 0.05%, 3차는 0.004%에 불과했다.

삼성전자 역시 매출액이 1% 늘면 1차 협력사의 매출은 0.562% 늘었으나 2차는 0.07%, 3차 협력사는 0.005% 늘어난 뿐이었다.

보고서는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발하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성이 약해지고 있는

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낙수효과 모델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낙수효과에 여전히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그럴 때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낙수효과 모델을 ‘불균형 성장 모델’로 지칭하며 “우리가 이미 상당히 선진국 문턱까지 왔고 경제구조도 바뀌었기 때문에 (낙수효과와 적용이) 안 된다”라며 “과거처럼 특정 부문 자원을 많이 하고 이런 식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농협, 상호금융대상 평가 우수

전국 1위 달성 트로피·표창·상금 수상

전북농협은 6일 정례조회에서 농협 상호금융 우수 농·축협에 대한 시상과 부상을 전달했다.

농협중앙회가 평가한 2016년 상호금융대상 평가에서 남원축협과 오수관농협, 대성농협이 그룹별 전국 1위를 달성해 트로피, 표창, 상금을 수상했다.

또한 NH농협카드에서 평가한 2016년 NH농협카드 대상 평가에서 구이농협이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남산농협과 용지농협이 지난 1월 예수금 500억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지난 2월 남원축협과 왕궁농협, 진안농협이 건전연선 1,000억원 달성으로 달성탑을 수상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전북농협 상호금융 사업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금융사업의 수익구조개선과 자산건전성 제고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다.

강태호 본부장은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서민금융 지원으로 고객에게 지역 최고 금융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농촌진흥청, “봄철 일교차 가축 면역력 저하 주의 요구”

“소 호흡기 질병·돼지 환기량 늘려야”

농촌진흥청은 봄철 큰 일교차가 가축의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소·돼지·닭 등 주요 가축의 관리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호흡기와 소화기질병의 발생 감소에 주력해야 한다. 아침·저녁으로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낮에는 충분히 환기한다.

봄에는 버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환기와 함께 일광욕을 시키고, 방목해야 하는 소들은 나가기 15일 전부터 축사 밖에 적응하도록 한다.

이른 봄에 태어난 송아지는 저온 스

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온등 설치하는 등 온도관리에 신경 쓴다.

송아지 분만이나 임신(들이기) 전에는 축사내부를 소독하고 설사병과 호흡기질병 예방백신을 접종한다.

한우 번식우는 벗겨위주의 사양관리로 비타민 A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료첨가제로 보충해 준다.

돼지는 성장단계별로 적정 사육온도가 16°C에서 35°C까지 차이 나기 때문에 온사(돼지우리) 환경관리가 더 중요하다.

분만하는 22°C가 적당하며 새끼보온상자는 30°C·27°C를 유지해야 한다.

온도가 상승하면 환기 요구량이 많

아지고 지나치게 습하면 설사 등 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젖을 떼 새끼돼지는 새로운 무리에 속할 때 서열정착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특히 환절기 온도 차이가 5°C 이상 나면 질병 저항력이 크게 떨어진다.

날이 따뜻해지면 운동량이 늘어나므로 사육밀도를 낮추고 환기량을 배로 높여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

임신돼지는 기온상승에 따라 사료 먹이는 양을 줄여야 하는데, 체중점(Body Condition Score)에 따라 주 1회 이상 사료 먹이는 양을 조절한다.

봄에는 닭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사료의 질과 양을 조절해 지방의 발생을 예방하고, 길어지는 일조시간에 맞

춰 점등 관리를 철저히 해 산란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어린 병아리는 체온조절능력이 떨어져 처음 1주 동안은 31°C~33°C 정도를 유지하다가 1주일 간격으로 약 3°C씩 온도를 내려주고 20°C 전·후가 되면 가온을 중단한다.

계사(닭장) 내의 습도는 병아리 기르기 초기에는 70%, 2주령에는 65%, 3주령 이후에는 60% 정도가 적당하다. 실내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주 정도는 바닥에 물을 뿌려주거나 가습기를 사용한다.

환기가 안 되면 폭식증, 장염, 호흡기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발육이 늦어지며 사료효율이 낮아지고 폐사율이 높아지므로 일명, 기후 등 고려해 환기를 실시한다.

/인재용 기자

창조경제혁신센터, 글로벌 수출역량강화 워크숍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14일 창업기업들의 글로벌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출역량강화 무역실무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탄소·농생명·문화·ICT 분야 창업기업의 글로벌 수출역량강화를 위하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무역협회,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북본부 등 4개 기관이 공동 참여해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초청강의와 상담부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무역협회와 AT센터 전문위원이 참석해 창업기업에게 1:1상담부스를 운영하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코디네이터 컨설팅사업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무역실무 워크숍은 도내 창업기업 및 일반인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참가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을 통해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주택 320호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는 도심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다가구주택 32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지역은 전주,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시 및 완주군 일부지역이며, 매입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인 다가구주택이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 동별 세대수가 5가구 미만인 주택, 개발예정지역(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공공지구 등)내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매입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현장실태조사와 매매협의를 거쳐 대상주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업기관 2곳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한다.

한편,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중개해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도 지급할 예정이다.

다가구주택 매입신청은 LH 전북본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본부 주거복지사업1부(063-230-6184)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신보-우리은행, 성장유망 중소기업 육성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는 우리은행 호남영업본부와 ‘호남지역 성장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일부터 본격적으로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호남지역 중소기업 중 성장성이 유망한 기업들을 발굴해 양 기관이 우대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영위기업, 지식재산 보유 기업, 수출중소기업 등이며, 양 기관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상호 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보는 이번 협약보증의 보증료율을 0.2%p 차감하며, 보증비용 또한 최대 3년간 90% 이상 우대 적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게 되며, 우리은행 역시 대출금리를 우대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계획이다.

신보 정양수 본부장은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호남지역 소재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추천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지역 투자자, 주식거래량 ↑ · 거래대금 ↓

2월 전북지역 투자자의 주식거래량은 증가한 반면, 거래대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서 발표한 ‘2월 전북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도내 투자자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합친 주식거래량은 2억8,046만주(2억7,109만주)에 비해 937만주(3.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은 1조943억원으로 전월(1조1,461억원)에 비해 5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의 거래비중은 전월 대비 변동은 미미했다.

도내 유가증권시장 거래량 상위 종목은 미래산업, 한진해운, 흥아해운, 아남전자, 세우글로벌, SG세계물산 등 순이며 코스닥시장의 거래량 상위종목은 KD건설, 위노바, 지엔코, 코디엔, 씨씨에스, 국일제지, 이트론 등 순이었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